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3. 8. 16.(수)/ 총 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전략연구본부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최일선 실장(051-797-4727, ilsunchoi@kmi.re.k)- 이슬기 전문연구원(051-797-4768, sglee84@kmi.re.kr)	
배포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96)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KMI, 2022년 해양관광 시장규모 37조 4,400억원으로 추정
전국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의 64.5%에 해당
-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 시장규모 큰 폭으로 성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시장규모를 처음으로 추정하여 발표했다. KMI 최일선 박사(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장) 연구팀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안지역 462개 행정동의 해양관광 관련 업종인 숙박, 숙박 외 여가오락, 음식, 소매·유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최일선 박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매출액은 58조 20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37조 4,400억원으로 연안지역 매출액의 6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2018년 29조 3,000억원, 2019년 29조 9,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28조 6,50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 31조 3,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2022년은 37조 4,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2022년 기준 부산의 시장규모가 5조 7,200억원으로 가장 컸고, 경남(5조 2,700억원), 전남(4조 9,1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 세 지역을 포함하는 남해안의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15조 9,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양관광

시장규모의 42.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해양관광시장 시장규모 추이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업종별로는 2022년 기준 음식업종이 약 20조원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소매·유통, 숙박 외 여가오락, 숙박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종은 전년대비 26.1%(▲4조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이 된 이후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해양관광객의 연령별 소비 특성의 경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0대의 해양관광 비중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1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관광 시장은 3040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5060의 비중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연안지역 상권과 해양관광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좀 더 정교하고 포괄적인 분석기법 연구와 함께 정기적인 해양관광 시장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분석을 통해 해양관광이 대표적인 국민 여가활동이며 해양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안과 어촌지역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실제 확인된 것은 큰 수확이다.” 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이슬기 전문연구원(051-797-4768, sglee84@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진 파일(JPG) 별도 송부>

